

“새해, 새로운 도정으로 새 시대 선도하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월 14일 “2016년 새로운 도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자”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에서

“도는 그동안 3대 혁신과 3대 행복과제를 중심으로 법정·비법정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일과 생각하는 방식 전반에 걸쳐 변화를 꾀해 왔다”며 “그 결과 충남도정은 도민들로부터 높은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는 많은 영역에 있어 새로운 도전을 해왔고, 새로운 역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를 통해 도는 신균형발전 전략과 3농혁신,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거리 병산 차등적 전기요금제, 유역별 물 통합관리 체제 등 많은 부분에서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추구하고 이끌어 왔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는 3대 혁신과 3대 행복과제를 중심으로 지난 6년 동안 세워 온 수 백 개의 중장기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실천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올 한 해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한 대응을 하는 것,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



는 성과주의에 빠지지 말자”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챙겨 나아가자. 날마다 새롭게 시도하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의 실패에 대해서는 “새롭게 하자는

목표와 의지가 분명하다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에 대해 주저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이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그 핵심은 민주주의 원칙과 철학에 있다”고 못 박았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주는 우리 사회 운영의 가장 근본이 되는 체제이며,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모두의 창의를 촉발하며, 이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안 지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민주주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도정이 나아가야 할 기본철학이고,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가장 큰 동력”이라며 “‘새로운 충남’을 만들어 가자고 재차 강조했다.

전국체전·장애인체전 홈페이지 문 활짝

충남도는 오는 10월 도내 일원에서 열리는 제97회 전국체전과 제36회 전국장애인체전 홈페이지 구축 작업을 마치고 20일부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전국체전(<http://2016sports.chungnam.net>)과 전국장애인체전(<http://2016sportsp.chungnam.net>) 홈페이지는 대회 개요와 준비과정, 경기 정보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문화체전’으로 이번 대회를 치르기로 한 만큼, 충남의 역사와 문화, 관광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충남스토리’, 관광지 소개, 맛집 정보 등도 담았다.

두 홈페이지는 특히 모바일 시대에 맞게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 스마트기기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대회 전까지 각종 SNS 이벤트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전이 막을 올린 이후에는 경기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인에 새롭게 개편해 운영하며, ‘체전 리포터’를 활용해 주요 경기 실시간 중계, 경기장 및 주변 관광지 홍보 등도 진행한다.

한편 10월 제97회 전국체전과 제36회 장애인체전은 아산시를 비롯한 도내 15개 시·군 112개 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으로, 선수와 임원 등 4만여 명이 참가할 전망이다.

‘깨끗한 충남 만들기’ 기업·단체 앞장선다

충남도 내 사회단체와 기업 등이 ‘깨끗한 충남 만들기’ 운동 확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안희정 지사와 임동규 충남새마을회장, 김도훈 충청투데이 대표이사,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명진 총괄공장장을 비롯한 11개 기업 본부장·공장장 등은 1월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깨끗한 충남 만들기’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도와 이들 단체·기업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깨끗한 자연환경이 경쟁력이라는데 뜻을 같이한 뒤, 도정 핵심과제로 정하고 시·군과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노력해 온 깨끗한 충남 만들기를 더욱 확산

시켜 범도민 운동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또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사회적 역량 강화, 도민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키로 했다.

참여 단체·기업들은 이와 함께 각자의 현실에 맞게 실천과제를 설정·추진할 계획으로, 충남새마을회는 1읍·면·동 1지역 가꾸기 운동을 펼친다.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은 인근마을 환경정화 활동 등을 펼치고, LG화학 대산공장은 인근 도로 청소 등을, 부여 KGC인삼공사 고려인삼창은 백마

충남소식



강변 정화활동 등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는 아름다운 해변길 만들기를 추진한다.

부여 한국조폐공사 제지본부는 염장천을 대상으로 쓰레기 없는 실개천 만들기 사업을 펼치며,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는 생명의 바다 가꾸기 사업을, 서산 한화토탈은 어린이를 위한 친환경 자원순환 사업을 실시한다.

서산 현대오일뱅크는 다시 찾고 싶은 화곡저수지 둘레기 조성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글로벌 애코 리더 환경캠프 등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회사 주변 환경 정화활동을, 충청투데이는 깨끗한 충남 만들기 기획보도를 펼치기로 했다.

도와 단체·기업 등은 이번 공동선언이 지속적인 실천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깨끗한 충남 만들기 실천협약'을 구성·운영한다.

협약체는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운동을 함께 추진해 나아가는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 안희정 지사는 이번 공동선언은 모두가 함께 더 깨끗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

한 구체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깨끗한 충남 만들기 운동은 '깨끗한 충남'이 지역 발전의 동력이자 관광 충남의 경쟁력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해왔다.

도는 지난해 6월 깨끗한 충남 만들기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시·군 특화사업 선정과 환경정비 협업, 불법쓰레기 특별단속, 환경순찰단 구성·운영, 시·군과의 협약 등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청소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 '내 주변 청결 인증 사업' 등 지역 특화사업으로 선정된 44개 개별 사업에 36억 원을 지원 중이다.

올해에는 주민 선도시책 발굴·시행,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 롤모델 마련 사업 추진, 환경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쓰레기 처리 활성화 시스템 등 맞춤형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대산-당진고속도로가 마침내 뚫린다.

도와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기업, 지역 정치권 등의 전방위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도는 대산-당진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2월 3일 밝혔다.

대산-당진고속도로는 이번 예타에서 경제성(B/C, 비용대비 편익)이 1.0으로 평가돼 기준(1.0 이상)을 충족했다.

정책적 평가(AHP) 역시 0.536으로 기준점인 0.5를 넘어섰다.

사업성과 정책성 모두 인정받으며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사업비는 6502억 원으로, 모두 국비다.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대산-당진고속도로는 빠르면 내년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오는 2022년쯤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산-당진고속도로는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부터 당진시 용연동 서해안고속도로 남당진 분기점까지 24.3km(4차선)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대산항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산항 물동량은 지난 2008년 6099톤에서 2014년 7851톤으로 29% 증가하며, 전국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유류(위험) 화물 처리량은 전국 4위이며, 입항 선박은 2008년 5898척에서 2013년 7049척으로 연평균 3.6% 증가했다.

화물량은 5톤 트럭 기준으로 2008년 27834대에

서 2015년 31만 3908대로 7년 새 8.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또 대산단지 입주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도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산단지에서 당진IC까지 40km에 달하던 이동거리는 24.3km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이동 시간 역시 3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연간 절감 예상 비용은 운행비용 93억 원, 통행비용은 447억 원, 교통사고에 따른 비용 64억 원, 환경비용 20억 원 등이다.

박재현 도 건설교통국장은 “대산항은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물동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대산단지는 연간 국가예산의 1%가 넘는 4조 원가량의 국세를 납부하는 국가 발전의 견인차와도 같다”며 “이번 예타 통과는 국가 균형발전과 대산항·대산단지의 국가 기여도, 기업 물류비용 절감 등의 기대효과와 함께, 도와 서산시, 지역 정치권 등 각계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또 “환황해권 아시아 경제시대 중심 도약을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이 될 대산-당진 고속도로가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12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우수상 수상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정 공로 인정 －

충남도가 지난해 제정된 도 조례에 대한 합법성 등을 인정받아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우수조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조례상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선정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수여된다.

올해 도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반영하지 아니한 총 104개의 조례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우수조례에 선정된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총 36건의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도의회의 조례심의권을 보장

하기 위해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임위 별로 4개로 분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의 조례안으로 상정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는 도 조례의 법률적합성 확보는 물론, 법규 및 조례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특히 도는 이번 일괄개정조례가 조례개정의 범위를 기존 개별에서 다수로 넓힌 점에서 타 시·도에서도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치조례 우수기관 수상의 위상에 걸맞게 올해 자치입법 수요를 조사하고 특정 계열에 치우치지 않도록 검토·조정해 2016년 자치입법 지원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다양한 입법수요에 적극 대응해 입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부도 등 멸종위기 철새 서식지 보전 정책 필요”



매년 충남 서해안으로 날아드는 철새의 서식지 보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충남연구원이 제작한 ‘세계적으로 보전해야 할 충남의 주요 철새’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충남 천수만과 금강하구는 겨울 철새의 주요 서식지이며, 서천 유부도와 장항갯벌은 ‘도요물떼새’의 국내 최대 서식지”라며 “이처럼 충남이 철새가 많은 이유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중간기착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포그래픽 제작에 참여한 충남연구원 정옥식 박사는 “특히 충남 서천 유부도는 ‘멸종위기종’ 20여종이 서식하고 ‘전세계 생존 개체수 1% 이상’ 9종이 도래하는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서식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아직 뚜렷한 보전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부도는 국제조류보호연합(BirdLife International)이 지정한 동아시아-대양주 이동 경

로상 가장 중요한 11곳 중 하나이며, 세계관광기구(UN WTO)가 정한 세계 8대 생태관광 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정 박사는 “매년 유부도 현장탐사에서 ‘극심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넓적부리도요’ (전세계 600마리)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며 “앞으로 유부도는 국제기금조성을 통한 보전사업과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인 만큼, 지자체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유부도의 생태·관광 가치를 담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수만, 장항해안, 유부도, 금강하구 등 충남 도내 주요 서식지에는 넓적부리도요, 청다리도요사촌, 붉은어깨도요, 저어새, 황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다양한 멸종위기 철새들이 매년 발견되고 있다.

충남연구원, '충남 2040 미래연구서' 펴낸다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 CNI)은 올해 '충남 2040 미래연구서'를 펴낸다고 밝혔다.

'충남 2040 미래연구서' (이하 '미래연구서')는 도민행복 실현을 목표로 충남의 미래를 설정하되, 모든 분야를 망라하기보다 '사람', '삶터', '일(자리)', '돌봄' 등을 중심축으로 충남의 미래를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충남연구원은 이번 미래연구서 출판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공동 기획편집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출간프로젝트 간사인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홍원표 박사는 "현재 지구촌은 기후변화, 글로벌화, 권력분산, 스마트화 등 패러다임 전환기에 처해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삶의 질 중시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과거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일변도 정책에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책

의 출판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미래연구서는 제1권 '충남은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 제2권 '충남 2040 미래를 그린다' 등 총2권으로 구성되며, 각각 오는 6월과 11월에 출간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1월 13일 연구원에서 미래연구서 제1권 집필을 위한 첫 집필진회의를 갖고 본격 원고 작성에 들어갔다. 이날 참석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집필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주제별 토론 시간을 가졌다.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그간 충남의 부문별 미래연구는 있었으나 충남의 중장기 미래에 대한 융·복합적 연구가 미흡했었던 게 사실이다"며 "이번 미래연구서는 지역정책연구기관, 지역 대학,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의 협력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충남의 미래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정책개발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권으로 읽는 '심훈'의 모든 것! 충남연구원, 심훈 3남 심재호가 쓴 <심훈을 찾아서> 발간

2014년 9월 심훈(1901~1936)의 기념관이 그의 소설 상록수의 산실인 당진에 마련됐다. 그가 세상을 뜬 지 78년 만에 들어선 심훈기념관은 저항 시인이고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이고 예술인이었던 삶의 여정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심훈 기념관을 건립하기까지 그의 3남인 심재호의 역할이 컸다. 그는 50여 년간 아버지 심훈의 유

물과 친필, 영화 각본을 찾아다녔다. 일제 총독부가 새빨간 연필로 검열한 시집 <그날이 오면> 등 아버지가 남긴 4천여 점의 원고 사본을 기념관에 내놓았고, 아버지의 유해를 <상록수>를 집필했던 기념관 근처 '필경사' 옆에 안장했다.

심재호가 아버지 심훈에 대한 기억에서부터 심훈기념관이 건립되기까지 과정을 기록해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바로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이 '충남재발견' 시리즈 제1호로 기획해 최근 발간한 '심훈을 찾아서'(도서출판 문화의 힘, 265쪽, 1만 4000원)이다.

충남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충남재발견’ 시리즈 출간을 통해 그동안 덜 알려졌던 충남 지역의 문화·예술·환경 등 우수한 자산과 사람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됐다. 1부는 '사진으로 보는 심훈'이다. 일제 검열로 만신창이가 된 '출판 불허' 도장이 찍힌 '그날의 오면' 검열판과 심훈의 서대전 감옥 수감기록, 소설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 당진시 부곡리 '공동경작회' 회원들의 얼굴 등 수십 점의 귀한 사진을 한데 모았다.

2부 '심훈을 찾아서'는 김태현 순천향대 교수(문학평론가)가 쓴 '심훈 일대기'로 시작된다. 2부 1장에는 '심훈기념관'이 건립되기까지의 과정을 비롯해 충남 당진과 주변 필경사에 얹힌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필경사는 1935년 소설 상록수와 아들 심재호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함께 수록된 권영민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문학평론가)는 〈심훈 시집 '그날의 오면'의 친필 원고들〉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이 자료들이야말로 한국 현대문학 최대의 보물이라고 말하고 싶다. 일본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어떤 작가나 시인의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친필 원고를 고스란히 보존해 온 경우가 없다. 이 자료들을 잘 지켜오신 심재호 선생께 머리를 숙여 존경을 표하고 싶다"

한편, 지금의 영농조합에 해당하는 〈공동경작회〉(소설 상록수 실제 모델)의 사업내용과 세세한 기

역을 모아놓은 것도 이 책롭다.

2부 2장에는 아들 심재호가 아끼는 아버지 심훈의 작품을 엄선했다. 시는 〈거리의 봄〉 〈고루의 삼경〉 〈동우〉 3편이다. 편지글인 〈감옥에서 어머니께 올린 글월〉도 실었다. 이 밖에 수필 당진 앞바다의 소화가 들어 있는 〈7월의 바다〉를 비롯해 〈단재와 우당1〉 〈나의 아호 나의 이명〉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나의 아호 나의 이명〉에는 심훈이 본명인 심대섭에서 심훈을 쓰게 된 배경과 아호로 '백랑'(白浪)을 사용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2부 3장은 자의 반 타의 반 '또 다른 심훈'으로 불리는 심재호에 대한 기록이다. 그는 〈동아일보〉 기자, 미주동포신문 〈일간뉴욕〉 편집국장 겸 발행인, 카터재단의 국제분쟁조정기구(INN) 창립회원을 역임했다. 특히 '뉴욕 이산가족 찾기 후원회'를 조직해 북한을 20여 차례 방문, 1천여 명의 남북 해외 이산가족을 찾아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이 책은 충남이 낳은 심훈 선생과 얼마 전 개관한 심훈 기념관의 역사를 그의 아들을 통해 듣는 한 권으로 보는 심훈 보고서이자 심훈 기념관 안내서"라고 평했다. 이어 "앞으로 '충남 재발견' 시리즈에 걸맞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충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연구원-(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도내 농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이사장 이윤기)와 2월 15일 연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6차산업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협동적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인적, 물적 교류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협약내용을 자세히 보면 △6차산업화 및 사회적경제 관련 공동사업 추진 △농어촌 사회적기업가 발굴 육성과 6차산업화 창업 지원 △6차산

업과 사회적경제 분야의 학술·교육·연구조사의 공동 추진 △농촌 및 지역 산업체의 비즈니스 역량 컨설팅 △윤리적 소비 촉진을 위한 대시민 홍보 및 계몽활동 등을 담고 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는 이미 마을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특히 충남연구원 농어업6차산업화센터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충남지역 농업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고모집

www.cni.re.kr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열린충남은 충남에 관한
자유소재(정책제언, 충남여행) 등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열린마당** 코너에
소개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원고작성

A4용지 4~5매, 휴먼명조,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사진포함)

보내실곳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흥동)
충남연구원 기획조정연구부
전화 (041)840-1123 팩스 (041)840-1129
E-mail : cdipr@cni.re.kr